

정태춘 작품 세계의 변화와 상징으로서의 ‘물’

이영미 (대중예술 연구자)

정태춘이 한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포크 자작곡 가수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비단 비판적 포크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포크 전반, 혹은 더 나아가 한국 대중가요사 전반으로 폭을 넓혀 보아도 자작곡 가수로서의 그의 전 역사는 독보적이다. 이 글에서는 정태춘의 작품세계의 흐름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그의 작품 전 시기에 걸쳐 중요하게 등장하는 '물'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 / 1983년 까지 - 음반 『시인의 마을』, 『사랑과 인생과 영원의 시』, 『우네』 (박은옥 음반 『회상』, 『양단 몇 마름』)

제2기 / 1989~1908년 - 음반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 『무진 새 노래』

제3기 / 1980~1901년 - 음반 『아, 대한민국...』

제4기 / 1992~2007년 -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 『정동진 / 건너간다』

제5기 / 208년 이후 - 음반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

제1기 / 1983년까지

제1기는 작가 정태춘의 기초 재료들이 축적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장기에 경험했던 농촌의 풍경과 삶, 농촌 청년의 상상과 동경으로 주조된 상상된 도시 풍경, 지식인과 예술인의 세계를 동경하며 만들어낸 시적 포즈와 관념적인 언어들, 스무 살 또래들이 경험하거나 상상한 연애의 떨림과 이별의 아픔, 고향을 떠 나온 후 갖게 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다. 특히 포크 작가 중 국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독특하다. 이는 향토적 분위기의 가사, 거칠거칠한 질감에 음을 흔드는 독특한 시김새의 가창과 어우러져 그의 고유한 색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시기의 형상들은 아직 충분한 내적 성찰을 경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습작기의 초기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적 사물인 강과 바다 역시, 아직은 충분한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사랑과 이별의 공간적 배경으로만 기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서해에서》, 《회상》 등에서 이별과 그리움의 장소로서의 바다, 《장마》에서 큰물에 나룻배가 묶여버린 강 등은, 그다지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힘든 단순한 공간과 풍경이다, 많은 할 말과 관심이 분출하고 있으나 아직 자신의 것을 충분히 정제하지 못한 이 시기의 모습은 에너지 충만한 청년작가답다.

제2기 1983~1988년

이에 비해 제2기는 작가주의적인 언더그라운드 자작곡 가수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이다. 2집과 3집의 흥행 실패로, 어쩔 수 없이 몇 년 간의 공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그는, 1984년 『떠나가는 배』로 간신히 재기에 성공한다. 1970년대에 등단한 많은 포크 가수들이 그러했듯이 그 역시 음반과 라디오, 소극장 공연 등을 주 활동으로 하게 됐고,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일원이 되었다. 1985년의 <북한강에서>는 훨씬 더 과감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도 수용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는 안정감 있는 작가주의 자작곡 가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87년

6월 시민항쟁을 겪은 후 다소 완화된 검열 환경을 배경으로 1988년에 내놓은 『무진 새 노래』로 그의 작가적 색깔은 더욱 뚜렷하게 정립되었다. 예컨대 <애기 2>에서 그의 청년기 방황을 자기와 세상을 탐색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으로 보여준다.

드디어 강과 바다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떠나가는 배>의 바다는 <서해에서>와 <회상>의 바다와는 달리, '배'로 상징되는 자신에게 주어진 망망대해 같은 인생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북한강에서>의 강은, '내 맘 속에 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며, 늘 똑같아 보이지만 늘 새로운 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

제3기 1989~1991년

이어진 제3기는 대중가요계를 떠나 민중가요계로 '이적'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음반인 <아, 대한민국..>은 검열성 심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비합법 음반으로 제작한 것이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조를 지지하는 순회공연을 치르면서 <송아지 송아지 누렁 송아지>와 함께 정태춘은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 만들어낸 1990년의 『아, 대한민국...』에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같았던 과거 고향의 세계에 대한 막연하고 낭만적인 그리움이 사라졌고 <누렁 송아지> 공연에서 강하게 풍겼던 소박한 민족주의에서도 벗어났다. 대신 기존의 대중가요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강도 높은' 사회비판적 내용이 담겼다. 서울에서 밀려나는 빈민들('떠나는 자들의 서울'), 가난하여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는 어린아이('우리들의 죽음'), 사체로 발견되는 대학생('일어나라, 열사여'), 극심한 빈부격차와 가난한 자들의 분노(우리들 세상), 총체적으로 절망적인 한국 사회('아, 대한민국...') 등 당대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는 거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여 독백하듯 노래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탈피하여, 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실천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의 노래에는 물의 상징이 등장하는 노래가 <황토강으로> 단 한 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제4기 1992~2007년

제4기는, 몇 년 간의 뜨거운 시기가 허망하게 끝나버린 당혹감과 아쉬움의 노래들로 채워져 있다. <5.18> 처럼 마치 거리와 광장에서 노래했던 제3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다시 차분한 관찰자적 태도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회귀는 아니었다. 그는 다시 세상에 대해 차분하게 관찰하고 독백하듯 읊조리지만, 이제 단순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낭만적 그리움 같은 세계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관심을 놓지 않는다.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라고 노래하는 <92년 장마, 종로에서>나 1990년대를 환멸의 시대' 혹은 어두운 터널'로 보는 <건너간다>, <이 어두운 터널을 박차고> 등 세상은 투쟁하는 사람들의 기대 만큼 빨리 바뀌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움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그간 예리해진 비판의 시각과 감수성애다가 섬부른 흥분마저 가라앉은 다소 차분해진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다시 강과 바다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4기의 강물은 흐르지 않는 듯 지루하게 아주 천천히 흐르는 노쇠한 한강(<건너간다>)이다. 그렇다고 그가 물에서 세상이 나아지고 인간의 삶이 좀 편안해지리라는 희망을 거두지는 않는다. 황홀한 무지개를 띄우는 곳도 정동진 바다이고 (<정동진>) <수진리의 강>에도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몸을 씻는 편안한 강이 배치되어 있다. 그에게 물은 여전히 희망과 치유의 핵심이다.

제5기 2008년 이후

제5기의 작품에서 그는 더욱 차분히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준다. 제4기의 작품에서 남아있던 뜨거운 시대가 끝나버린 당혹감과 아쉬움도 사라졌고, 현재의 상황을 언젠가는 빠져나갈 '어두운 터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시 첫 차를 기다리'기도 하고 '첫차는 마음보다 일찍' 온다고 다독이기도 하지만, 봄은 오래 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마음의 착잡함이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는 다시 차분하게 주변의 자연과 인간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차분해지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니 더 심각하게 세상과 불화하고 있다. 이런 불화의 태도는 2002년의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에 비해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에서 더욱 심화된다.

그나마 그가 조금이나마 긴장의 끈을 놓는 대목은 산업화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시공간이고, 또 거기에는 여지없이 물이 배치되어 있다. '계곡 물엔 단풍잎들이 헤엄치고 은어 떼들 산으로 오르는' 곳(<강이 그리워>) 아이들이 '주린 채 잠들지 않고 총성에 그 잠 깨지 않고 '새벽 강물을 마시며 '거대한 일출을 맞는 아프리카의 호숫가(<날자, 오리배>), '물에 없는 희망을 파도 속에서 찾으려는가'라고 자신을 성찰하게 만든 정동진과 동태평양 바다(<정동진 3>)이다.

2019년 4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며 그는,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노래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98년에 나온 「정동진/건너간다」부터 대중의 반응이 없으니 신작 음반을 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십 년 전 거리에서 고생했던 뜨거웠던 투쟁의 시대를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해할 만한 세상과 만나지 못한 중노년 작가의 힘든 이야기를, 사람들은 잠시 공감할지언정 즐겨 구매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한국 포크 역사와 한국대중가요사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아주 오래 개척했고, 그의 성과는 이미 충분히 넘사벽이다.

이 글은 2019년 6월 8일 연세대에서 진행된 한국대중음악학회 제 25회 정기 학술대회 / “음악이 사회를 만나는 하나의 방식; 정태춘 박은옥의 음악적 실천”에서 발표된 글의 내용 일부입니다.